全北學硏究 제3집(2021)
2021년 6월 30일, pp.179-209

The Journal of Jeonbuk Studies, Vol.3(2021)
Jeonbuk Institute, 2021, pp.179-209

전북지방 조선공산당 재건운동(1929~1932)*

이현진**

목 차

1. 머리말
2. 조선공산청년동맹 전북준비위원회
3. 조선공산당재건설준비회 전북지방위원회
4.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이 연구는 1929년부터 1932년까지 전라북도 지방에서 일어난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을 다루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서, 1929년부터 1932년 사이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이 변화하는 양상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928년 12월 이후, 당시 사회주의자들은 12월 테제를 바탕으로,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을 시작했다.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재건방법을 가진 결사들이 조직되었다. 1929년 10월, 전라북도에서도 김병숙을 중심으로 '조선공산청년동맹 전북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이 결사는 공산청년동맹을 통해서 조선공산당을 도출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미래당원을 육성하는 하기 위해, 구성원들에게 사회주의 사상교육을 실시했다. 이외에도, 이 결사는 전주합동노동조합과 같은 표면단체를 통해서, 지역의 노동 사건에 개입해서, 전국적인 파업을 유도하려는 시도를 했다.

1930년 7월, 전라북도에서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은 '조선공산당재건설준비회 전북지방위원회'로 이어졌다. 김창수와 한종식이 만나서 이 결사를 조직했다. 전라북

* 본 논문은 필자의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전북지방 조선공산당 재건운동(1929~1932)』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 전북대학교 사학과 대학원 석사, E-mail: mim0303@nate.com

도의 활동은 한종식이 주도했다. 이 결사는 대중조직을 통해서, 당의 기반인 야체이카를 구성하려는 목표을 세웠다. 이 결사는 야체이카를 구성하면 해산될 임시적 성격의 결사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결사의 주요 활동은 학교를 중심으로 한 독서회와 일반 대중을 위한 가두반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두 결사의 활동을 통해서, 1929년부터 1930년 사이의 재건운동과 1930년 이후의 재건운동이 가지는 특징을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전북지역의 사회주의운동의 한 측면을 밝혀낼 수 있다. 주요자료로는 일본 경찰 측의 보고서와 압수문건, 관계자들의 판결문이 이용되었다.

주제어 : 조선공산당, 재건운동, 전라북도, 공산청년동맹, 사회주의

1. 머리말

본문지금까지 조선공산당과 사회주의 운동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1928년 이전 시기에 머무르고 있다. 1929년부터 진행된 조선공산당의 재건운동에 대한 주요 저서는 그리 많지 않다. 1976년 발행된 김준엽· 김창순의 연구를 비롯하여,[1] 몇몇의 연구자들이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을 다루고 있다.[2]

이 연구들을 통해서 특정한 시기의 재건운동이나 특정한 어떤 결사들의 활동들은 비교적 명확하게 밝히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한 결사의 전후 시기 사이의 차이와 흐름을 조명하지 못하고, 각 결사가 개별 연구로 분절되는 경향이 생겼다.

---

1) 김준엽·김창순, 1986,『한국공산주의운동사』1~5, 청계연구소.

2) 대표적인 연구로는 한국역사연구회 1930년 연구반, 1991,『일제하 사회주의운동사』, 풀빛; 최규진, 2009,『조선공산당 재건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김도형, 1993,「김천지방의 사회주의운동과 조선공산당 재건운동-김천지방을 중심으로-」,『북악사론』3, 국민대학교 국사학과; 김경일, 1994,「경성콤그룹과 지방조직」,『한말 일제하의 사회사상과 사회운동』, 문학과 지성사; 최규진, 1996,『코민테른 6차대회와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정치사상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임경석, 2006,「잡지 '꼼뮤니스트'와 국제선 공산주의그룹」,『근대전환기 동아시아 삼국과 한국-근대인식과 정책』, 성균관대 출판부; 윤선자, 2007,「1933년 '전북조공재건 및 충남전위동맹'의 조직과 활동」,『한국독립운동사연구』28,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김희주, 2016,「진주지역의 사회주의운동과 조선공산당 재건운동」,『東國史學』61, 동국역사문화연구소; 심상훈, 2018,「1930년대 조선공산당재건운동을 통해 본 사회운동의 성격 – 경북북부지역 유학적 지식인의 활동을 중심으로 -」,『朝鮮史硏究』27, 朝鮮史硏究會. 등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라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두 개의 조직을 중심으로, 1929년부터 1932년까지 조선공산당 재건을 시도한 사회주의자들이 주로 어떤 활동을 통해서 당재건을 시도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 두 조직이 결사를 구성한 방법을 통해서, 12월 테제 직후부터 1932년까지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이 변화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라북도 지방의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은 전체 조선공산당 재건운동 연구에서 주목받지 못했다. 다만, 전체 운동을 조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언급됐을 뿐이다. 그래서 연구의 내용이 김준엽·김창순의 연구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일부분만을 겨우 조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일부분에서도 사실에 대한 오류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전북지방 조선공산당재건운동에 대한 확실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두 결사의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두 결사가 전체 조선공산당 재건운동과 전북지역 사회주의운동에서 가지는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 두 결사가 가진 특징과 활동을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이용했다. 먼저, 일본경찰이 각 결사를 검거한 전후에 작성한 보고서[3]와 각 결사의 구성원들이 작성한 문서[4]를 토대로, 이들이 추구한 재건방법의 특징과 활동을 도출했다. 그리고 판결문[5]과 신문기사 통해서, 구성원들의 행적과 활동을 상세하게 보충하고자 한다.

---

3) 김준엽·김창순, 1979, 「朝鮮共産黨組織計劃の件」, 『한국공산주의운동사』 자료편 2, 고려대학교 출판부; 김준엽·김창순, 1979, 「朝鮮共産黨再建計劃其の他檢擧報告」, 앞의 책.

4) 김경일, 1993, 「朝鮮共産黨組織計劃檢擧ノ件(別紙第17號)」, 「朝鮮共産黨組織計劃檢擧ノ件(別紙第20號), 「朝鮮共産黨組織計劃檢擧ノ件(別紙第22號)」, 「朝鮮共産黨組織計劃檢擧ノ件(別紙第28號)」, 「朝鮮共産黨再建計劃其ノ他檢擧ニ關スル件(別紙 第2號)」, 『한국민족해방운동사자료집』 1권, 영진문화사.

5) 경성지방법원, 1932.3.25, 「소화6년 형공 제1396호, 제1397호 판결문(정우상 외 4인)」; 전주지방법원 형사부, 1934.3.31, 「소화8년형공제1919호 판결문(김철주 외 41인)」;대구복심법원, 1934.11.29, 「소화9년형공공 제161 내지 164호 판결문(김철주 외 8인)」; 전주지방법원 형사부, 1934.12.24, 「소화9년형공공 제1200호 판결문(김성남 외 12인)」;전주지방법원, 1933.12.4, 「소화8년형공 제1733호 판결문(김종련)」; 전주지방법원 형사부, 1932.12.2, 「소화7년형공 제1476호, 제1477호 판결문(김혁진 외 7인)」; 대구복심법원, 1933.3.18, 「소화7년형공공 제754호, 제755호 판결문(김혁진 외 4인)」;전주지방법원 형사부, 1932.3.16, 「소화7년형공제100호 판결문(문은종 외 5인 판결문)」;대구복심법원, 1932.4.28, 「소화7년형공공제161호 판결문(문은종)」;전주지방법원 형사부, 1930.3.5, 「소화4년형공 제1680호 판결문(임부득)」.

2. 조선공산청년동맹 전북준비위원회

1) 공청전북준비위의 결성

1928년 12월 이후, 조선인 사회주의자들은 조선공산당을 재건하려는 움직임을 시작했다. 전라북도에서도 조선공산당을 재건하고, 새로운 사회주의 운동을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시작은 김제 출신의 김병숙(金炳璹)에게서 비롯된다. 김병숙은 민중운동자동맹 사건으로 12월에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6] 출소한 뒤에는 1926년 10월에 조선공산당에 입당한 이후, 제2차 당대회에서 중앙검사위원장을 맡는 등의 활동을 해왔다.[7]

조선공산당 당원으로 일본 경찰의 검거망에 오른 김병숙은 고향인 김제로 도피했다. 그리고 지역 내의 사회주의자들을 잇달아 만났다. 1929년 2월부터 9월 무렵까지 문은종(文殷鍾), 최육득(崔六得), 최정렬(崔正烈), 정우상(鄭遇尙), 김재환(金在煥), 신언진(申彦眞), 신만영, 이재필(李在必) 등과 만난 김병숙은 코민테른의 '조선문제에 대한 결정서'를 따라서 기존의 방침을 일소하고 노동자·농민을 중심으로 조직을 재건하기로 협의했다.[8]

주요 인물 중 하나인 문은종은 경성 제1고등보통학교에 다니던 중, 1928년 2월에 비밀결사 "CS당"에 가입했었다. 그 후, 사립 고창고등보통학교에 입학 뒤에는 "CS당"의 강령을 바탕으로 한 "S당"이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했다.[9] 정우상은 사립 고창고등보통학교 졸업 후, 일본 유학중에 사회주의를 습득했다. 1928년 8월 돌아와서, 전주청년동맹, 신간회 전주지회 등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10] 최정렬도 정우상과 같은 일본유학생으로, 1928년 초에는 전주청년동맹과 청년총동맹에서 활동하고 있었다.[11]

1929년 10월 중순경, 김병숙의 은신처에서 김병숙, 문은종, 김재환, 정우상 등 4명은 조선공산당 재건을 위한 야체이카를 조직했다.[12] 기존의 연구에서는

---

6) 강만길·성대경, 1996,『한국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 창작과 비평, 73쪽.
7) 이준식, 2009,『조선공산당 성립과 활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78쪽.
8)「朝鮮共産黨組織計劃の件」, 김준엽·김창순, 1979, 앞의 책, 655쪽.
9) 판결문에 따르면, CS당은 "ㄱ당" 또는 "조선생공산당"이라고도 한다. 전주지방법원 형사부, 1932.3.16,「소화7년형공제100호 판결문(문은종 외 5인 판결문)」.
10) 경성지방법원, 1932.3.25,「소화6년 형공 제1396호, 제1397호 판결문(정우상 외 4인)」.
11)「전주청맹」,『동아일보』, 1928년 4월 29일.
12) 자료에는 문은종, 정우상, 김재한(金在翰)이 회합한 것으로 나오지만, 전후 사정을 살펴볼 때, 이는 김재환(金在煥)의 오기로 보인다. 김준엽·김창순, 1979, 앞의 책, 655쪽.

이 결사를 '전북공산주의자협의회'라고 명명했었다.[13] 그러나 이 명칭은 자료에 비춰볼 때, 결사의 성격과 특징을 잘 드러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명확한 명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료를 살펴보면, 구성원인 한종식의 판결문에서 "……조선공산청년동맹 전북준비위원회에 가입할 것을 권유 받자……."라고 언급된다. [14] 또, 일본 경찰의 기록에서는 "공산청년회 조직준비위원회"라고 부르고 있다.[15]

따라서 이 결사의 명칭은 "공산청년회 조직 준비위원회" 또는 "조선공산청년동맹 전북준비위원회" 중에 하나로 해야 한다. 그런데 구성원들의 문건에서는 '공산청년동맹'이라는 용어가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16] 따라서 '공산청년동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결사의 성격을 나타내는 데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조선공산청년동맹 전북준비위원회'(이하 공청전북준비위)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결사를 정비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1929년 11월 전주군 삼례면에서 문은종, 정우상, 김재환이 공청전북준비위를 개최했다. 그리고 정우상이 총책임과 정치부를, 문은종과 김재환은 각각 조직부와 선전부를 맡았다. 또, 문은종은 도내 각지를 순회하면서 각 표면단체 내부에 있는 동조자들과 만나서 야체이카를 조직하기로 협의했다. 이후, 3명은 전주 인근의 보리암에서 10여 차례 야체이카를 진행했다.

1930년 3월, 일본 경찰을 피해서 도피 중이었던 김병숙이 검거되고 최정렬이 그자리를 승계했다. 그리고 정우상과 문은종 등과 지속해서 야체이카 모임을 진행했다. 1930년 6월 중에는 김재환이 이탈하고, 최육득이 김재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됐다. 전주 덕진공원에서 만난 세 사람은 부서를 개편하고 여러 차례 야체이카 모임을 가졌다.

6월 상순 무렵, 정우상은 전주군 다가정(多佳町) 진상용의 집에서 김문옥, 진상용, 진현섭, 강인영, 한종식 등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활동을 위한 각각의 부서를 정했다.[17] 정우상은 전주에서의 활동 책임을 맡았고, 문은종은 가명으

---

13) 김준엽·김창순, 1986,『한국공산주의운동사』5권, 청계연구소, 343~344쪽.
14) 『소화8년형공제1919호, 제****호 판결문(김철주 외 41인)』, 전주지방법원 형사부, 1934.3.31
15) 김준엽·김창순, 1979, 앞의 책, 655쪽.
16) 김경일, 1993,「朝鮮共産黨組織計劃檢擧ノ件(別紙第17號)」,「朝鮮共産黨組織計劃檢擧ノ件(別紙第20號),「朝鮮共産黨組織計劃檢擧ノ件(別紙第22號)」,「朝鮮共産黨組織計劃檢擧ノ件(別紙第28號)」, 앞의 책.
17) 김준엽·김창순, 1979, 앞의 책, 676쪽.

로 도내 전 지역을 순회하면서 선전하는 책임을 맡았다. 이러한 내용을 구두로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결정했으며, 자세한 강령은 정우상이 초안을 만들어 논의하기로 했다.[18]

6월 하순, 진상용의 집에서 다시 모인 자리에서는 좀 더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기존의 전주청년동맹을 새로 정비하는 방법을 논의했다. 이 활동은 선전부와 조직부가 책임을 맡았다. 또, 한종식을 군산에 파견해서, 신언진과 장태성의 활동을 돕기로 했다.

이렇듯 공청전북준비위는 1930년 7월에 검거될 때까지 공청전북준비위의 모임을 통해서, 주요 사안들을 결정하고, 지도했다.

2) 공청전북준비위의 특징과 결사의 성격

(1) 특징

1928년, 12월 테제의 발표부터 이어지는 초기 당재건운동의 특징을 기존의 연구에서는 '전국적 전위조직 우선건설노선'으로 요약하고 있다.[19] 전국적 전위조직 우선 건설노선이란 기존의 파벌적 성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즉각적으로 자파 중심의 전국적인 조선공산당 조직을 결성하려는 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방식을 기존의 연구에서는 파벌적 기준에 따른 배타성을 제외한 다른 통일성을 가지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파벌적 성격을 먼저 살펴보면, 기존의 연구에서는 공청전북준비위를 ML계로 보고 있다.[20] 하지만 구성원의 행적 중에 ML계와 연결되는 점은 그렇게 명확하지 않다. 그나마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접점은 크게 2가지로 공산당원이었던 김병숙[21]과 문은종이 'CS당'의 최성환을 거쳐서, 공산당원인 이현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22] 하지만 이 정도의 관계만으로 이들을 명확하게 ML계로 확정하기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측면인 즉각적이고 전국적인 결성시도에 대해서도 이러한 점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공청전북준비위가 다른 지역을 염두에 두기 시작한 시점

18) 김준엽·김창순, 1979, 앞의 책, 670쪽.
19) 이종민, 1991, 「당재건운동의 개시(1929~31년)」, 『일제하 사회주의운동사』, 한길사, 127~129쪽.
20) 이 조직을 '전북공산주의자협의회'라고 부르고 있다. 김준엽·김창순, 1986, 앞의 책, 343~344쪽.
21) 이준식, 2009, 앞의 책, 179쪽.
22) 전주지방법원 형사부, 1923.3.16., 「소화7년형공제100호 판결문(문은종 외 5인)」.

은 1930년 3월 무렵부터이다. 경성에서 열릴 예정이던 조선청년총동맹의 부군대표자 대회에 정우상이 박두언과 함께 참석하려던 활동이 처음이었다.[23] 또, 그들의 문서에서도 전국적인 결사를 추구한 내용은 별도로 있지 않다. 따라서 공청전북준비위가 즉각적으로 전국적인 연결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파벌적 특성과 즉각적이고 전국적인 결성이라는 특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볼 때, 결사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서 결사의 구성 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사의 명칭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 결사가 추구한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은 조선공산청년동맹의 결성을 통한 방법이었다. 그렇다면, 공산청년동맹은 어떤 조직이며, 공산청년동맹의 결성이 조선공산당과는 어떤 관계를 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발표된 청년운동에 관한 연구에서는 공청전북준비위와 비슷한 시기의 공산청년조직 재건운동을 조선공산당 재건운동과 별도의 움직임으로 분리하고 있다.[24]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그 구분이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먼저, ML계의 조선공산당중앙간부조직은 그 구성원 중 한명인 고광수가 고려공산청년회중앙간부를 조직해 활동했다.[25] 또, 서울상해계가 중심이 된 조선공산당재건설준비회에서도 고려공산청년회재건설준비회를 조직하고, 태극을 국내로 파견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26] 결국, 공산청년조직 재건운동은 당재건운동 결사의 구성원 중 한 명을 공산청년동맹 재건 책임자로 임명한 수준에서, 당재건의 한 과정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산청년조직을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볼 때, 이제 문제는 공산청년조직의 결성이 공산당을 전망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이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국제공산청년동맹의 경우를 중심으로 공산청년조직과 공산당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기존의 연구에서는 "공청은 당의 강령과 전술에 의해 활동할 수밖에 없는 당의 외곽조직"이라고 언급하고 있다.[27] 바꿔 말하면, 공산청년조직은 당

23) 경성지방법원, 1932.3.25, 「소화6년 형공 제1396호, 제1397호 판결문(정우상 외 4인)」; 김준엽·김창순, 1979, 앞의 책, 672~673쪽.
24) 신주백, 1995, 「1929-36년 공청재건운동의 전개 및 성격」, 『한국근현대 청년운동사』, 풀빛, 404~436쪽; 박철하, 2009, 『청년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52~162쪽.
25) 박철하, 2009, 앞의 책, 154~155쪽.
26) 박철하, 2009, 앞의 책, 156쪽.
27) 신주백, 1995, 앞의 논문, 408쪽; 박철하, 2009, 앞의 책, 152~162쪽.

의 강령과 전술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공산청년조직이 결성된다는 것은 반드시 그 강령과 전술을 제공할 당이 있어야만 한다고 볼 수 있다.

공청전북준비위는 국제공산청년동맹의 역사를 그들의 문서에서 반복해서 다룰 정도로 중요하게 보고 있다.[28] 국제공산청년동맹은 국제사회주의청년연합의 후신으로, 1919년 코민테른이 창설되자, 소련 혁명을 지지하는 좌파가 1919년 베를린 회의를 통해 명칭을 바꾸고 설립한 국제 공산주의 단체였다. 국제공산청년동맹의 제2회 대회에서 당과 공산청년동맹 사이의 관계가 새롭게 정의됐다. 창립 당시에는 청년전위조직으로서의 독자성을 강조했었다. 그러나 제2회 대회에서는 정치적 지도의 단일화를 강조하면서, 당이 공산청년동맹을 좀 더 높은 위치에서 지도하는 관계라고 명확하게 설정했다.

즉, 공산청년동맹은 기본적으로 당의 외곽기관이나 하부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리고 청년층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의 역할과 당의 예비대의 역할을 맡는다. 이 단체들은 조직상으로는 독립된 단체였다. 그러나 공산청년동맹은 방침이나 강령을 가질 수 없어서, 온전히 스스로 존재하지 못한다. 그래서 공산청년동맹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강령을 제공하는 공산당이 존재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공산청년동맹의 결성은 결국, 그 상위기관인 공산당을 전망하게 되는 것이다.

공청전북준비위도 공산청년동맹이 당의 지지가 없다면 미조직 공장반의 조직, 동맹의 조직, 경제 또는 노동조합 활동, 신문과 교육 등 어떠한 활동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공청전북준비위도 공산청년동맹을 당의 영향 아래에 두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또, 공청전북준비위는 동맹이 당의 지도권에 동맹이 종속된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다. 공청전북준비위는 당이 “동맹 중에서 최량분자(最良分子)들로 조직되는 노동계급의 전위”라고 그 성격을 명시했다.[29] 그리고 동맹의 성격을 당과 비교할 때, 더 광범위하고 큰 조직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동맹의 임무는 노동자 청년을 교육하는 공산주의 대중학교라고 규정했다. 이는 당이 청년의 특수한 요구를 모두 반영할 여력이 없고, 성인과 청년이 구분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30]

그리고 공청전북준비위는 동맹이 그 구성원을 교육해서, 그 구성원이 당의 중심을 선출하도록 규정했다. 이 점은 동맹이 가진 당의 예비대로서의 성격을

28) 김경일, 1993, 앞의 책, 261~262쪽; 김경일, 1993, 앞의 책, 138쪽.
29) 김경일, 1993, 앞의 책, 261~262쪽 247쪽.
30) 김경일, 1993, 앞의 책, 261~262쪽 247~248쪽.

확인시켜 준다. 즉, 공청전북준비위가 상정한 공산청년동맹은 국제공산청년동맹과 그 원칙에서 차이를 가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산청년조직을 결성하는 것은 단순히 공산청년동맹만을 결성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 상위기구인 공산당을 바라보고 있다고 여겨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공청전북준비위가 어째서 공산청년동맹이 먼저 필요하다고 여겼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불행히도 공청전북준비위가 공산청년동맹을 추구한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는 자료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앞서 확인한 공산청년동맹의 일반적 특징과 구성원들의 언급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의문에 대한 답을 유추할 수 있다.

김병숙은 기존의 공산당을 '인텔리겐챠'와 '소(小) 부르주아' 들과 섞여서 검거가 용이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식이 완전한 열성분자를 혁명투사로 선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은종, 정우상, 김재환을 공청전북준비위원으로 삼을 때도, "노동자·농민 청년을 주체로 혁명전위당의 결합이 없다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31]

중심인물 중 한명인 문은종은 "각지에서 공산당원의 검거는 후계를 끊어버렸고, 혁명운동은 파멸의 상황에 이르렀으니, 이곳에서 우리들 공산주의자, 특히 청년공산주의자는 그 책임이 중대하다."고 언급했다.[32] 또, 김병숙이 검거된 뒤에, 결사의 책임을 맡았던 최정렬도 "이면에서는 투쟁을 통하여 이론의 통일을 계획하고, 최량분자(崔良分子)를 선택하여 당 결성의 기초당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33]

공청전북준비위의 핵심을 구성한 이들의 발언을 통해서 두 가지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기존의 공산당원들은 일본 경찰에게 검거되면서 궤멸하였기 때문에 더는 당을 구성할 인력이 없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당이 궤멸한 상황에서 기성세대가 아닌 새로운 세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여기에 12월 테제가 기존의 운동을 비판한 사실이 더해져서, 기존에 활동하던 인물들이 아닌 새로운 당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공산청년동맹을 통해서, 당원이 될 수 있는 분자들을 육성하고, 그들로 하여 당을 새로 구성하게 하는 전망을 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

31) 김준엽·김창순, 1979, 앞의 책, 665쪽.
32) 김준엽·김창순, 1979, 앞의 책, 666쪽.
33) 김준엽·김창순, 1979, 앞의 책, 669쪽.

(2) 결사의 구성방법

공산청년동맹의 건설이 공산당을 재건하는 하나의 방향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공산청년동맹과 공산당과의 관계를 통해서 확인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은 "공산청년동맹을 어떻게 건설하려 했는가?"이다. 기존의 운동방법이 12월 테제에서 비판받은 이상, 새로운 공산청년동맹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했다.

공청전북준비위의 조직방법은 김병숙의 언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기록에 따르면, 김병숙은 문은종과 만난 자리에서 조선공산당 재건을 위한 방침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국제공산당의 조선문제에 대한 결정서'에 기초하여, 직접 노동자, 농민층을 중심으로 하여, 표면에는 노동 및 농민운동단체를 조직하고, 그 중심에 잠입하여 주의를 선전한다. 그리고 투쟁을 통해 동지를 규합하여, 지도 및 교양훈련을 실시하여, 무엇보다도 의식이 완전한 열성분자를 혁명투사로 선발하고, 이들을 기초로 하여 하급 야체이카로부터 상급 중앙기관까지 조직의 완성에 힘씀으로써, 혁명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필요하다. 때문에, 공산청년회 조직운동도 노동, 농민조합 가운데 청년부를 설치하여, 그 가운데 지도자를 넣고, 별개로 가르치고 길러, 앞의 방침을 더해, 완전무결한 혁명투사가 되는 것을 기약해야할 것."[34]

이 내용을 볼 때, 코민테른의 12월 테제가 조직방침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새로운 전위당의 건설은 '노동자·빈농에 중심을 둔' 아래로부터의 결성을 추구해야 했다. 따라서 공청전북준비위도 하급 야체이카로부터 상급 중앙기관까지 건설하려했다.

이 하급 야체이카를 결성하는 방법으로는 표면에 노동 및 농민단체를 내세우고, 그 이면에서 지도와 교양을 통해서 열성분자를 얻는 방법을 제시했다.[35] 열성분자를 얻는 구체적 방법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공산청년동맹의 조직운동과 같았다고 보인다. 그 방법은 각 조합 내부에 청년부를 설치하고, 청

34) 김준엽·김창순, 1979, 앞의 책, 665쪽.

35)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당시 일본 경찰은 표면기관의 활동으로 위장해서, 검거와 발각이 어렵게 하고, 검거되더라도 진술을 쉽게 꾸며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방법이라고 파악했다(김준엽·김창순, 1979, 앞의 책, 647쪽).

년부의 구성원을 지도하는 것이었다. 이 방법은 국제공산청년동맹 제5회 대회에서 조선의 공산청년운동에 제시한 방침이었다.[36]

공청전북준비위는 반을 기초로 삼았다. 공장노동자들은 공장반으로 조직하고, 일반 대중들은 가두반을 만들어 포섭하려고 했다. 상위기구의 도출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반들은 지구 단위의 조직에 포괄하고, 각 지구조직들을 지방조직으로 묶어내려는 방식를 추구했다.

다른 문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사회주의 운동을 전개하려 했는지 유추할 수 있다. 자료에서 파악할 수 있는 강령들은 모두 12월 테제가 제시한 내용에서 도출했다고 보인다. 12월 테제에서는 사회주의자들이 선전활동을 하면서, 보편적인 투쟁과 관련된 슬로건을 결부시킬 생각을 하고 있었다.[37]

공청전북준비위는 지배계급에 대한 항쟁을 강조하면서, 전투적 전위가 전국의 농·노조를 재조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원산총파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활동가와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송금할 것을 주장했다.[38] 그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파업을 제시했다. 노동자는 8시간 노동 후에 공장에서 나와 총파업을 일으키고, 농민은 대농장을 탈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파업이 전국적인 규모로 확산되면, 그때 노동자 소비에트를 결성해야 했다. 그리고 총파업 이후에는 무장 봉기로 전환을 이끌도록 했다.[39]

다른 강령을 보면, 8시간 노동제와 농민에게 토지를 요구하는 이러한 노동·농민 문제를 정치문제로 전환해나가야 했다. 그리고 각 부문에 맞는 슬로건을 마련하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서, 평의회와 자치운동을 거부하고, 노동자 대표위원회를 조직하고자 했다. 궁극적으로, 총독부를 타도하고, 노동자와 농민이 중심이 된 정부를 수립하고자 했다.[40]

(3) 성격

공청전북준비위는 당의 하위기관이자 예비대로서, 당을 전망할 수 있는 조직체인 공산청년동맹을 준비했다. 특히, 미래의 당원을 교육하는 공산청년동맹

---

36) 신주백, 1995, 앞의 논문, 407쪽.

37) 12월 테제에서 조선의 사회주의자들이 사회주의 선전과 결부시켜야하는 슬로건으로 8시간 노동, 소년의 6시간 노동, 노동자와 농민의 정부, 토지무상분배 등을 제시했다(이반송, 김정명 편저, 1986, 「조선 농민 및 노동자의 임무에 관한 테제(12월 테제)」, 『식민지시대 사회운동』, 한울림, 214쪽).

38) 김경일, 1993, 앞의 책, 261~262쪽 149쪽.

39) 김경일, 1993, 앞의 책, 261~262쪽 226쪽.

40) 김경일, 1993, 앞의 책, 261~262쪽 238쪽.

의 역할이야말로 새로운 당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공청전북준비위는 새로운 인물들을 포섭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포섭한 인물들은 대부분 지역의 사회운동단체에 속해서 꾸준한 활동을 가져오던 사람들로, 지역 운동을 이끌만한 위치에 있었다. 문은종과 정우상, 최정렬 등은 각자 구성원 획득을 위한 활동을 진행했다.

문은종은 1929년 11월부터 군산청년동맹 간부인 신언진, 장태성(張台成), 한종식(韓宗植)[41] 등 3명을 포섭하는데 성공했다. 이어서 김제의 박두언(朴斗彦), 정형완(鄭亨完), 박판철(朴判鐵) 등 3명을 포섭하고, 부안의 박의동(朴儀棟), 백남철(白南哲) 등 2명, 정읍의 송상문(宋相文), 민병관(閔炳寬) 등 2명을 각각 포섭해서 야체이카를 조직하는데 성공했다.[42]

이 인물들의 행적은 명확하지 않지만, 대략적인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군산의 3명은 앞서 말한 대로 군산청년동맹의 간부였다. 박두언은 재외김제학우회(在外金堤學友會),[43] 김제청년동맹(金堤靑年同盟)[44] 등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박의동은 부안합동노조에서,[45] 송상문은 전북청년연맹에 소속되어 활동을 해왔다.[46] 민병관은 정읍청년동맹 서기[47]로 활동하고 있었다.

정우상도 전주에서 진상용(陳相庸), 진현섭(陳玄燮), 강기영(姜麒永), 최난파(崔蘭坡), 인득수(印得洙) 등을 포섭해서 야체이카로 조직했다.[48] 전주 야체이카에 소속된 진상용과 진현섭은 신문기자로 활동했다.[49] 강기영은 군산기독청년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50]

---

41) 한종식의 본적은 강화군 하도면이다. 당시에 군산의 정미소에서 노동자로 일하고 있었다. 한종식의 이명으로는 한혁(韓革). 한종석(韓鍾錫), 이판옥(李判玉), 윤태현(尹泰鉉), 김인현(金仁顯) 등이 있는데, 이명 가운데 이판옥은 이후 조선공산당재건설준비회 전북지방위원회와 관련된 기록에서 사용된다. 한종식이 문은종으로부터 공산청년회 조직준비회에 가입을 권유받은 시점이 1930년 12월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1930년 12월은 이미 대부분의 조직원들이 발각, 검거되었던 때이기 때문에, 1929년 11월에서 12월 무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김준엽·김창순, 1979, 앞의 책, 667쪽; 김준엽·김창순, 1979, 앞의 책, 688쪽; 전주지방법원 형사부, 1934.3.31, 「소화8년형공제1919호 판결문(김철주 외 41인)」).

42) 김준엽·김창순, 1979, 앞의 책, 667쪽.

43) 『동아일보』, 1928년 8월 7일, 「계획대개금지 김제학우회총회」.

44) 『동아일보』, 1929년 5월 1일, 「2개년만에 개최된 청총위원간담회」.

45) 『중외일보』, 1928년 8월 26일, 「부안합동노조, 창립대회 성황/ 집행위원회」.

46) 『동아일보』, 1928년 5월 22일, 「토의안금지 방청객축출」; 『중외일보』, 1928년 5월 22일, 「중지, 금지로 일관한 전북청맹대회, 15일부터 2일간」.

47) 『동아일보』, 1928년 5월 16일, 「정읍청맹, 원만히 창립」.

48) 김준엽·김창순, 1979, 앞의 책, 667쪽.

49) 『동아일보』, 1929년 4월 14일, 「전북기자대회 5월 15일 전주서 개최」; 『중외일보』, 1929년 5월 12일, 「지국 사고」.

한편, 최정렬은 1929년 11월 상순 무렵부터 김병숙의 지시로 삼례에서 신만영, 이재필과 모임을 가지고, 야체이카를 조직했다. 그리고 신만영과 이재필로부터 익산과 삼례의 각 노동조합들의 정세를 보고 받고, 각 노동조합을 산업별 원칙에 의해서 합동노조로 개편하는 등의 운동 전략을 지시했다. 그리고 매주 모임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 등을 결의했다.

공청전북준비위는 포섭한 야체이카 구성원들에게 사회주의 사상교육을 진행했다. 공청전북준비위는 사상교육을 위한 교육 과정을 마련했다. 교육과정을 통해서, 구성원들을 사상적으로 통일하고, 완성해서 조선공산청년동맹과 미래의 공산당원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그리고 교육을 위한 교양훈련코스를 마련했다.[51]

교양훈련코스 교재 중 몇 가지 내용으로 그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 먼저, '코민테른의 강령, 규약'과 '사적유물론의 이론'과 같은 사회주의 사상의 기초이론에 대한 교육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또, '계급투쟁의 위대한 전략가로서의 레닌', '마르크스 평전', '마르크스의 사상과 그의 생애' 등 레닌과 마르크스에 대한 개인사에 교육과 '최근 중국 정세', '지금 세계의 가운데' 등의 국제정세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제청년과 코민테른의 전략, 전술', '국제청년운동의 이론과 조직' 등 공산청년동맹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교육을 실행했다.

3) 노동분야 활동과 공청전북준비위 구성원의 검거

지금까지 공청전북준비위의 결성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제는 실제 현실에서 어떤 활동을 통해서 결사의 목표를 실현하고자 했는지를 볼 차례이다. 결성과정과 활동과 검거를 구분한 이유는 이들의 활동은 즉각적인 공산청년동맹이나 공산당의 결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과 같은 표면단체의 활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표면의 활동이 모두 이면의 공산당 재건운동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표면단체의 활동은 공청전북준비위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에, 거꾸로 거슬러 오르면 공청전북준비위의 활동을 유추할 수 있다.

앞서 본 것처럼, 공청전북준비위는 중요한 투쟁방법으로 파업을 꼽았다. 특히, 1929년 7월에 일어난 전주 삼례운송점 파업과 전주합동노조의 메이데이

50) 『동아일보』, 1921년 11월 9일, 「군산기독청년총회」.
51) 김경일, 1993, 앞의 책, 208~281쪽.

시위를 통해서, 공청전북준비위의 활동을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삼례운송점 파업을 전후한 준비위의 활동을 살펴보면, 삼례운송점의 파업이 정확히 언제 발생하고, 어느 정도의 규모였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하지만, 공청전북준비위가 이 파업을 전국적 규모로 확대하려고 계획한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 규모 있는 파업이라고 여겨진다.

이들은 파업이 진행 중이던 1929년 7월 중순에 파업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했다. 최정렬, 정우상 등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문은종이 삼례운송점 파업 상황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문은종은 박준용에게 전주의 다른 철도노동자와 함께 삼례운송점 파업에 동조하는 파업을 열도록 지시했다. 박준용을 제외한 남은 인원들은 삼례운송점 파업을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52]

파업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격문을 작성해서 전국의 사회단체에 보내는 방법을 이용했다. 격문의 자세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지만, 「삼례 환성운송점 노동자 동맹파업에 대한 전국의 노동자, 농민에게 격문을 보낸다」라는 제목과 7개의 표어는 확인할 수 있다.[53] 이 격문은 정우상이 작성한 초안을 최육득이 원고지에 옮기고, 진상용이 인쇄해서 배포하려 했다. 그러나 계획은 뜻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파업의 확산을 우려한 일본경찰이 관계자들을 잇달아 검거했기 때문이다. 결국 공청전북준비위는 하는 수 없이 격문 배포를 중단하고, 최육득이 격문을 소각했다.[54]

한편, 공청전북준비위는 전주에 조직되어 있던 몇 개의 노동조합을 합쳐서, 표면기관으로 전주합동노조를 조직하였다. 전주합동노조는 일본 경찰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표면단체였다. 그리고 합동노조라는 명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존의 노조가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개편될 수 없는 지역에서 나타나는 지역별 노동조합으로의 개편을 위한 과정으로 보인다.[55]

공청전북준비위는 합동노조를 이용해서 메이데이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일본경찰은 합동노조의 집회를 금지시켰다. 준비위는 우발적인 상황을 가장해서 시위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우발적인 상황을 만들기 위한

52) 김준엽·김창순, 1979, 앞의 책, 1979, 667쪽.
53) 격문에 포함할 표어는 다음과 같다. (1) 환성운송점의 노동자는 총파업을 일으켰다 (2) 8시간 노동제의 확립 (3) 최저임금제의 확립 (4) 토지는 농민에게 (5) 언론, 출판, 집회, 파업, 시위운동의 자유 (6) 치안유지법의 철폐 (7) 자치운동의 박멸(김준엽·김창순, 1979, 앞의 책, 668쪽).
54) 김준엽·김창순, 1979, 앞의 책, 668쪽.
55) 김경일, 2008,『노동운동』,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연구소, 204~206쪽.

술과 음식을 준비하고, 시위에 사용할 표어와 깃발들도 미리 준비했다.

시위 당일인 5월 1일 정오 무렵에 노동자들이 모이자, 박준용은 미리 준비한 술을 노동자들에게 마시게 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표어가 적힌 붉은 깃발을 들고 '노동자해방만세!'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시작했다. 전주경찰서에서는 급히 경찰을 파견해서, 관계자 20여명을 체포했다.[56][57] 이후 개최한 메이데이 비판회에서, 최정렬은 이 자리에서 메이데이 시위가 합동노조 설립 후 반 년 만에 이룬 성과라며 기뻐했다.[58]

공청전북준비위는 1930년 5월을 전후해서,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을 시도하려던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방향이란 그동안 진행한 전북지방의 운동을 토대로, 다른 지방의 운동을 일으켜 연결하려는 것이었다. 그런 공청전북준비위에 주어진 큰 기회가 조선청년총동맹의 전국부군대표자대회였다. 공청전북준비위는 이 대회를 다른 지역의 활동가를 포섭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보았다.

1930년 5월, 조선청총 전국부군대표자대회 준비위원회를 이유로,[59] 박두언이 먼저 경성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정우상과 신현진도 함께 경성에서 모였다. 이들이 접촉한 사람들은 조선청년총동맹 중앙집행위원인 박숙용, 원산청년동맹의 장태형 등이었다. 이들은 모인 자리에서 1930년 9월까지 각 지방에 야체이카를 조직하기로 협의했다. 그리고 각자 활동할 지방을 분담하고 해산했다. 하지만 이 모임이 일본 경찰에게 발각되면서, 공청전북준비위도 함께 검거되고 말았다.[60]

이 검거로 전북지방에서 40여 명의 관련자가 검거되었다. 이 가운데, 1930년 3월에 먼저 검거된 김병숙은 도주 중이던 조선공산당 관련 혐의로 1931년 10월에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61]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12명 중에 경성에서 박숙용 등과 만났던 정우상, 박두언과 최정렬이 재판에 회부되었다. 그리고 1932년 3월 2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정우상 징역 2년, 박두언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최정렬은 증거불충분 무죄로 풀려났다.[62]

---

56) 김준엽·김창순, 1979, 앞의 책, 670쪽; 『중외일보』, 1930년 5월 3일 석간, 「전주노동층에 대혼란」.
57) 『중외일보』, 1930년 5월 3일 석간, 「전주노동층에 대혼란」.
58) 김준엽·김창순, 1979, 앞의 책, 670쪽.
59) 동아일보, 1930년 4월 9일, 「조선청총의 위원을 보선」.
60) 경성지방법원, 1932.3.25, 「소화6년 형공 제1396호, 제1397호 판결문(정우상 외 4인)」; 김준엽·김창순, 1979, 앞의 책, 673쪽.
61) 강만길·성대경, 1996, 앞의 책, 73쪽.
62) 경성지방법원, 1932.3.25, 「소화6년 형공 제1396호, 제1397호 판결문(정우상 외 4인)」.

공청전북준비위는 1929년부터 1930년까지 1년여의 짧은 활동을 남기고, 일본 경찰에게 검거되고 말았다. 그래서 다른 재건운동 결사와의 연결이나 전국 규모의 결사와 같은 부분에서는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12월 테제'를 가지고, 같은 시기에 당재건을 추구한 다른 결사들의 방법과는 다르게 조선공산청년동맹을 먼저 건설하고, 조선공산당의 재건을 추진하는 특이한 방향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공청전북준비위는 전라북도 지방에서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활동가들이 아닌 새로운 활동가들을 조직해냈다는 성과를 거뒀다. 그리고 공청전북준비위는 이 활동가들에게 사회주의 사상 교육을 제공했고, 일반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던 지역의 역량을 사회주의 운동으로 포섭할 수 있었다. 이렇게 교육된 구성원들은 이후 전북지방의 사회주의 운동에서 중요한 자원으로 자리 잡았다. 예를 들어, 한종식과 장재섭, 신언진 등은 후계조직에서 활동을 이어갔다.

3. 조선공산당재건설준비회 전북지방위원회

1) 전북지방위원회의 결성

1930년 5월, 6월 동안, 정우상과 박두언 등이 경성에서 청총관계자들과 만난 정황이 발각되면서, 공청전북준비위가 드러나게 되었다. 최종적으로 형의 확정이 확인되는 사람은 정우상, 박두언, 최정렬 등 3명이었다. 문은종, 최육득, 한종식, 장태성 등은 검거를 피하고 몸을 숨겼다. 하지만, 조직의 실체가 탐지된 이상, 기존의 활동을 똑같이 이어갈 수는 없었다.[63]

특히, 공청전북준비위를 책임진 최정렬과 정치부 등을 맡았던 정우상의 검거와 문은종의 도피는 공청전북준비위의 핵심에서 다른 구성원들에게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하고 결사를 구성하는 시스템이 붕괴되었다는 점을 의미했다. 결국, 새로운 재건운동을 위해서는 새로운 사람과 방침이 필요했다.

그 물꼬를 틔워준 계기는 1931년 1월 8일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제3차 조선공산당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김창수[64]의 출소로부터

63) 전북지방위원회의 결성에 참여한 김창수는 당시 전라북도의 상황이 "전통적인 조직의 구성분자도 전부 체포되어, 지금에는 수명의 잔여 인원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전북에서 전위대 역할을 완수할 수 없다."고 정의할 정도로, 전북지방의 여력이 소진된 상황이었다(김준엽·김창순, 1979, 앞의 책, 693쪽).

비롯됐다. 김창수는 출소하자마자 조선공산당의 실체를 조사하고, 당이 없다면 당을 재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김창수는 먼저 출옥한 이봉길[65]을 만난 자리에서 공청전북준비위의 구성원이던 한종식을 소개받았다.[66] 김창수는 이봉길과 만난 뒤, 1931년 1월 22일 무렵에는 고향인 정읍으로 돌아와 머물던 중, 한종식과 김철주[67] 등을 만나서 의견을 교환했다.

1931년 5월 4일경 김창수는 전주에서 한종식을 만났다. 두 사람은 김창수가 '경성파견원'의 역할을 맡기로 하고 해산했다. 6, 7월 말경, 김창수는 전주에 와서, 김철주, 한종식 등과 만났다. 그리고 한종식을 책임자로 중앙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창수는 전국적인 활동을, 한종식과 김철주는 전북지방의 활동을 맡기로 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 조직을 '조선공산당 재건설 준비회'로 지칭하고 있다.[68] 이 명칭은 경찰 문서 등에 진술된 김창수의 발언에서 유래한다.[69] 이 명칭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조선공산당재건설준비회'라는 명칭의 결사가 전국에 존재했다는 점이다. 이 명칭을 제시한 김창수는 경성과 충남에서 동일한 명칭의 결사를 조직했다. 즉, '조선공산당 재건설준비회'라는 결사는 경성 및 경기도 일대, 충청남도 일대, 전라북도 일대에 각각 존재했던 재건운동 결사를 모두 의미한다

---

64) 전북 정읍 출신으로, 김철수(金錣洙)의 동생, 김광수(金光洙)의 형이다. 1925년 10월 화호노농친목회 간부로서 부안군 백산면 원천리 소작동우회와 제휴하여 소작료 인하 투쟁을 전개했다(강만길·성대경, 1996, 앞의 책, 129쪽).

65) 전북 김제에서 태어나 보통학교를 졸업했다. 민중운동자동맹 회무위원으로 활동했고, '민중운동자동맹 관련사건'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927년 조선공산당 전북도당 김제야체이카 책임을 맡았다. 제4차 조선공산당 사건으로 1927년 8월에 검거되어 예심과정에서 2년을 서대문형무소에서 보내고,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 복막염으로 1930년 5월 중에 병보석으로 출감해서 김제벽성병원에서 치료중이었다. 강만길·성대경, 1996, 앞의 책, 337쪽; 「이봉길보석취소」, 『동아일보』, 1931년 8월 21일.

66) 문서에는 가명인 '이판옥(李判玉)으로 기술되어 있다(김준엽·김창순, 1979, 앞의 책, 688쪽).; 전주지방법원 형사부, 1934.3.31, 「소화8년형공제1919호 판결문(김철주 외 41인)」.

67) 김철주는 전주공립보통학교 4학년을 다니다가 퇴학한 후, 전주청년동맹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었다. 1928년 4월 전주청년동맹 제1차 정기 총회에 참석하여 도연맹 대표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임종환이 관련된 사건으로 검거되었으나, 1930년에 예심 면소로 출옥한 후, 전주청년동맹에서 주로 활동을 해오고 있었다. 강만길·성대경, 1996, 앞의 책, 135쪽; 전주지방법원 형사부, 1934.3.31, 「소화8년형공제1919호 판결문(김철주 외 41인)」; 『동아일보』, 1929년 5월 7일, 「12명 무사방면, 33명은 검사국에」; 『동아일보』, 1930년 12월 10일, 「19명이 면소된 전북공산당사건」.

68) 김준엽·김창순, 1986, 앞의 책, 334~343쪽.

69) 김준엽·김창순, 1979, 앞의 책, 693~694쪽.

고 볼 수 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이유는, 결사의 명칭을 제시한 김창수는 '서울파견원'이라는 이름으로, 주로 서울에서 머무르며 활동을 했다는 점이다.[70] 김창수가 전북에서 서울로 간 이후에 전북지방의 운동은 오로지 한종식과 김철주가 중심이 돼서 추진했고, 김창수는 그 활동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 기존에 사용하던 명칭은 전북지역의 활동을 조명하기엔 그 주체가 모호하고, 범위 또한 광범위하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사의 명칭을 전북지방의 결사를 의미하는 수준으로 한정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명칭으로 '전북지방위원회'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명칭은 지방 내 활동을 책임진 한종식이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71] 따라서 이 결사는 '조선공산당재건설준비회 전북지방위원회'(이하 전북지방위원회)라고 명명해야 한다.

전북지방위원회는 한종식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운동을 책임질 수 있는 인물들을 포섭하는 활동을 이어나갔다. 금산군 출신으로 금산청년동맹 위원인 길경섭을 시작으로,[72] 길경섭의 친척인 길재철과 동생인 길귀섭을 포섭했다. 또, 광주에서 김상혁[73]과 윤희중 등을 포섭했다. 1932년 3월에 김철주 검거 후, 옥구에서 공청전북준비위에 참여했던 신언진을, 9월에는 김창한, 권용훈과 만나서 운동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그 승낙을 얻어냈다.[74]

한편, 1931년 4월 하순 무렵, 김창수는 김제벽성병원에서. 김제노동조합의 전기환을 비롯한 김혁진, 오오득, 조순식 등을 조카였던 김용원과 함께 야체이카를 조직하게 했다. 야체이카의 책임은 김혁진에게 맡겼다. 김창수는 야체이카를 훗날 '전북지방위원회'의 야체이카로 편입하도록 지시했다.[75]

---

70) 김준엽·김창순, 1979, 앞의 책, 690~692쪽.

71) 전주지방법원 형사부, 1934.3.31,『소화8년형공제1919호, 제****호 판결문(김철주 외 41인)』.

72)『동아일보』, 1928년 4월 20일,「금산청맹대회」.

73) 전남 순천 출신으로, 1930년 이종림과 함께 조공 재건을 시도하면서 전남 책임을 맡았다. 1931년 조공재건설동맹을 조직하고, 7월 대구에서 열린 공산주의자협의회에 참석했다. 1932년 3월, 체포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강만길·성대경, 1996, 앞의 책, 81쪽).

74) 전주지방법원 형사부, 1934.3.31,「소화8년형공제1919호 판결문(김철주 외 41인)」.

75) 원 자료에는 전북공산주의자협의회라고 쓰여있으나, 전후사정을 보았을 때는 전북지방위원회로 봐야한다(김준엽·김창순, 1979, 앞의 책, 689쪽).

2) 전북지방위원회의 특징과 성격

(1) 특징

전북지방위원회는 전북지방을 중심으로 했다는 점과 공청전북준비위와 구성원의 일부가 겹친다는 점을 제외하면, 불과 몇 개월의 공백 사이에 완전히 다른 방침과 양상을 보인다. 이 차이점을 가져온 가장 큰 원인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 시작된다. 이전 시기에는 '12월 테제'에서 요구한 "파벌청산과 노동자·빈농에 기초한 볼셰비키 전위당의 건설" 말고는 다른 결정이 없었다.[76] 따라서 제각각 저마다의 조직방침을 제시하는 상황을 맞이했었다.

그러나 1931년 초반의 상황은 앞선 시기와 달라졌다. 1930년 9월에는 프로핀테른의 '9월 테제'가 발표되었다. 1931년 10월에는 범태평양노동조합 비서부의 '10월 서신'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이 두 문서를 중심으로, 재건운동이 통일되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9월 테제'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기에 운동방침에 영향을 끼칠 수 있었을까? '9월 테제'에 담겨있는 운동방침을 기존의 연구에서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이라고 해석하고 있다.[77] '9월 테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프로핀테른은 조선의 문제를 "프롤레타리아트가 아무런 독자의 혁명적 노동조합 조직을 갖지 않았다는 점"과 "무원칙적인 파벌투쟁", "좌익조직이 전혀 없다는 점"으로 정의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에서는 개개의 직업과 요구에 대항하는 강령을 통해서 노동자를 철도, 광산 등 프롤레타리아의 최대 중심지에 결집시키도록 요구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없는 곳에 혁명적 조합을 건설해야 한다는 임무를 주었다.[78] 즉, 당이 없는 상황에서 좌익 노동자를 우선 조직하는 방법으로, 혁명적 노동조합을 제시한 것이다.

전북지방위원회의 '테제'에서도 이 '혁명적 대중조직 건설노선'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79] 한종식은 김창수와 만난 자리에서 조선공산당재건설준비회의 '원칙강령'을 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김창수는 지금 원칙강령을 정하는 것은 지방 당의 결성과 같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그리고 지금은 행동강령만으로 충분하고, 원칙강령은 당이 결성된 다음에야 필요하다고

76) 신주백, 1995, 앞의 논문, 490~491쪽.
77) 최규진, 2009, 앞의 책, 20~21쪽.
78) 이반송, 김정명 편저, 1986, 「조선의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의 임무에 관한 테제(9월 테제)」, 앞의 책, 250~257쪽.
79) 김경일, 1993, 앞의 책, 244~266쪽.

한종식을 설득했다.[80]

문맥상 '원칙강령'을 당헌 또는 당규로 해석한다면, 김창수는 원칙강령을 정하는 것이 당헌 또는 당규가 되고, 조선공산당 재건설준비회를 당으로 만드는 것과 같다고 여겼다고 보인다. 즉, 이전 시기 당재건 운동의 특징인 '전국적이고 즉각적인 당조직 건설과정'에서 이미 지적된 문제점이 되풀이된다고 여겼다고 보인다. 따라서 전북지방위원회는 원칙강령이 아니라, 실제 활동을 보조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의 한정된 '활동강령'만을 가져야 한다고 여겼다.

테제의 구성을 보면, 전문을 시작으로, 과거와 현재 운동 비판을 거쳐, 지도부의 조직구성 등에 이른다. 이어서 곧바로 행동강령을 제시하고 있다. 이 행동강령의 분야를 보면 일반, 노동, 농민, 청년, 학생, 부인, 소년, 사회정책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어지는 조직방침에서도, 이 분야의 결사를 조직하는 방침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즉, 전북지방위원회는 '9월 테제'에서 제시된 혁명적 대중조직을 우선 건설해야 한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전북지방위원회를 건설하려던 목적은 9월 테제에서 제시한 새롭고 보다 구체적인 결성방법을 반영하기 위한 시도였다. 이 시도를 통해서, 공청전북준비위가 가졌던 방침을 보다 12월 테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일신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2) 결사의 구성방법

전북지방위원회의 테제에서 제시한 결성 방법의 가장 큰 틀은 조선공산당의 재건을 위해서 가장 하층의 조직인 야체이카부터 지구회의 ⇨ 지구위원회 ⇨ 지방전체회의 ⇨ 지방전체지도부로 이어지는 과정이었다.[81] 이 과정은 '12월 테제'에서 요구한 빈농·노동자에 기반을 둔 아래로부터의 조직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려는 방편이었다. 전북지방위원회는 오로지 전북의 운동만을 관할해서, 통일시켜야 했다. 이렇게 각 지방에 구성된 지방 전체지도부들이 합쳐서 '공산당재건설준비위원회'가 되는 것으로 전망했다.[82] 이 방식은 앞선 시기의 당재건이 즉각적이고 전국적인 당을 건설하려는 방식 대신에, 지방활동을 통해서 당재건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려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하지만 전북지방위원회는 당시의 상황을 이러한 과정을 실행할 수 없다고

80) 김준엽·김창순, 1979, 앞의 책, 1979, 695쪽.
81) 김경일, 1993, 앞의 책, 390쪽.
82) 김준엽·김창순, 1979, 앞의 책, 694쪽.

여겼다. 따라서 전북지방위원회는 “하부로부터의 조직 준비계급으로서 활동분자의 조직”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83] 그러므로 이 활동분자의 조직을 가장 먼저 조직하는 과정을 제시해야 했다.

이 과정을 전북지방위원회는 전북지방위원회 ⇨ 지구위원회⇨ 반위원회 ⇨ 야체이카라는 하향식 방법으로 설정했다.[84] 야체이카가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되면, 야체이카로부터 상위 조직을 결성하는 과정에 들어간다. 먼저, 야체이카를 조직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모든 조직은 그 역할이 다했기 때문에 모든 권한을 야체이카로 넘기고 해체되어야 했다.

모든 권한을 넘겨받은 야체이카는 다른 야체이카들과 함께 지구회의를 열고, 지방전체지도부를 상향식으로 선출하는 과정을 그렸다. 이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지방전체지도부가 결성된다. 이렇게 구성된 각 지방의 전체 지도부로부터 전국적인 당을 도출하는 목표를 가졌다.[85]

즉, 지금 결사의 명칭으로서의 ‘전북지방위원회’는 앞에서 아래로부터의 당 재건 과정에서 나온 전북지방위원회가 아니다. 이 전북지방위원회는 야체이카를 조직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잠정적인 결사로써, 야체이카가 조직되면 모든 권한을 야체이카에 이관하고 해체될 조직이었다.[86]

지방위원회는 임명된 대표 3인과 약간의 후보자로 구성하고, 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서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도록 했다. 위원회 산하에는 정치부, 조직부, 선전·선동부, 재정부를 두어서 하나의 부문씩 담당하게 하는데, 정치부의 결정은 위원회의 정기회에서만 철회될 수 있고, 다른 기관의 결정은 정치부의 결정에 따라서 철회될 수 있다.[87]

행동강령으로서, 전북지방위원회의 당면임무는 총 16개가 제시되었다. 이 당면임무는 전북지방위원회의 활동 중 핵심적인 목표로 그 역량을 집중해야할 내용을 담고 있다. 당면임무의 핵심내용은 지도부의 재편성, 일상투쟁의 조직, 최중요 공장에 반 확립, 대중조직 내의 좌익 프랙션과 농민조합 내의 반대파 결성, 학교 내 야체이카 조직 확립이었다. 이 임무들은 전북지방위원회가 가장 하층조직인 야체이카를 결성하기 위해서 추진해야할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88]

출판 활동도 매우 중요하다고 여겼다. 따라서 월 1회 이상의 선전·선동 자료

83) 김준엽·김창순, 1979, 앞의 책, 693쪽.
84) 김경일, 1993, 앞의 책, 389~390쪽.
85) 김경일, 1993, 앞의 책, 389~390쪽.
86) 김경일, 1993, 앞의 책, 389~390쪽.
87) 김경일, 1993, 앞의 책, 386~388쪽.
88) 김경일, 1993, 앞의 책, 392쪽.

를 정기적으로 발행하도록 했고, 팸플릿 등도 빈번히 발행하도록 했다. 회비는 노동자와 농민의 경우에는 수입의 5%를, 무직자의 경우에는 월 10전을 내야 했으며, 간행물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정했다. 실제로 「반전」과 「가두청년」이라는 정기간행물을 발간했다.[89]

청년, 농촌과 같은 각 세부 부문에서 결사를 구성하는 방법은 전체 구성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예를 들어, 적색노조를 위해서는 준비회와 그 위원회를 통해 하향식으로 구성해나가야 했다. 이 야체이카 조직위원회가 반을 만들고, 몇 개의 반이 다시 분회, 지구협의회 등으로 확대되고, 최종적으로 전국적인 규모의 노동조합을 결성해야 했다. 모든 활동은 합법적인 공간이 사라졌기 때문에, 철저히 비합법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져야만 했다.[90]

(3) 성격

전북지방위원회의 활동은 주로 판결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판결문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활동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가두반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독서회였다. 이 두 분야의 활동을 중심으로, 전북지방위원회가 어떤 성격을 지닌 결사였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전북지방위원회는 학교를 각 학급 단위로 구성된 반으로 조직하고자 했다.[91] 그런데, 이미 전북지방의 학교에는 독서회라는 형태의 결사가 학교 단위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었다. 그 활동의 중심에 있던 인물인 김규선은 전주공립보통학교 동맹휴학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퇴학당한 이후인 1930년부터 학생들을 독서회로 조직하는 활동을 하고 있었다. 김규선을 통해서 조직된 전주공립보통학교 독서회에는 고창동, 박재선, 김광훈, 박복근, 최월상, 이겸중 등 십 수 명의 인원이 참여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 김규선은 1931년 5월에 조균을 시켜서, 신흥학교에도 독서회를 조직하게 했다. 이외에도 이리공립농림학교에 다니던 양기주도 한종식과 만나기 전부터 독서회를 조직하고 있었다.[92]

전북지방위원회는 기존에 만들어졌던 독서회를 전북지방위원회의 한 부분으로 흡수하고자 했다. 그러기 위해서, 한종식은 1931년 7월에 김규선과 양기주를 만나서, 김규선을 학생 부분의 책임자로 임명했다. 양기주에게도 독서회

89) 김경일, 1993, 앞의 책, 393쪽.
90) 김경일, 1993, 앞의 책, 405쪽.
91) 김경일, 1993, 앞의 책, 407쪽.
92) 전주지방법원 형사부, 1934.3.31, 「소화8년형공제1919호 판결문(김철주 외 41인)」.

를 계속 결성하도록 지시했다. 자세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지만, 전북지방위원회는 완성된 독서회를 큰 무리없이 포섭해나갔다고 보인다.

독서회의 사상교육을 위해서, 각종 사회주의 운동 서적을 갖춰서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에 따르면, 전북지방위원회는 양기주를 통해서 이리공립농림학교 독서회를 이끌던 최재필에게 사상 관련 서적을 연구하도록 지시하고, 그 서적을 전달했다.[93] 서적을 구해서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전북지방위원회 자체적으로 사상 교양을 위한 간행물을 만들었다.

그 결과, 「반전」이라는 제목의 신문이 김철주의 책임 아래서 발행되어, 배포되었다. 이외에도 공청전북준비위의 서무·재정부 책임을 맡았던 김문옥을 통해서, 대구에서 권대형, 서인식, 심인택 등이 발행한 『코뮤니스트』와 『봉화』[94]라는 간행물을 1931년 7월부터 독서회에 배포했다.

전북지방위원회에 소속된 가두반의 활동은 일반 대중을 포섭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별도로 조직되었던 독서회를 끌어들인 것과는 다르게, 가두반은 인물을 포섭해서 새로운 결사를 조직해야 했다. 가두반의 중심은 전주 책임을 맡았던 김철주와 김규선과 함께 동맹휴학을 지도했던 김춘배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95]

가두반도 독서회와 비슷한 성격의 활동을 했다. 그 결성과정을 먼저 살펴보면, 김철주는 김창수, 한종식과의 회합결과를 바탕으로 1931년 7월말부터 김춘배, 최월상, 양운성, 김우영, 임부득 등과 만났다. 그리고 김춘배는 전주 본정(本町), 최월상은 완산정(完山町), 양운성은 남문, 김우영은 대정정(大正町)의 책임을 맡는 구성을 결정했다. 가두반의 최월상과 양운성, 윤기환 등은 독서회

93) 전주지방법원 형사부, 1934.3.31, 「소화8년형공제1919호 판결문(김철주 외 41인)」.
94) 『코뮤니스트』와 『봉화』는 권대형 등이 재건한 '공산주의자협의회의 기관지이다. 전자는 잡지 형식의 월간 발행물이었고, 후자는 순간(旬刊)으로 발행되는 신문이었다(신주백, 1995, 앞의 논문, 505쪽).
95) 김춘배는 전북 전주고등보통학교로 재학 중 1929년 6월 동맹휴교에 참가하였다가 체포되었다. 이 사건으로 6월 15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받고 즉시 공소하였는데, 검사도 판사의 판결이 가볍다 하여 맞고소를 하게 되었다. 결국 8월 28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9개월에 3년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1931년에는 전북지역에서 동지들과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을 전개하며, 사회주의 사상을 고취하여 독립을 도모하기 위해 『反戰뉴스』를 발간하고 일본의 제국주의 전쟁을 규탄하였다. 또한 7월 하순에는 전주청년동맹 다가정(多佳町) 반의 책임자가 되어 청년들에게 사회주의 사상을 고취시키며 일제의 침략정책을 비판하고 『가두청년뉴스』를 발행하여 청년반 책임자 등에게 배부하다가 1932년 6월경 전주경찰서에 체포되었다. 김춘배는 전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보안법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순국하였다.『동아일보』, 1929년 5월 23일, 「경찰에선 구금, 학교에선 퇴·정학」; 『독립유공자 공훈록』.

활동을 하다가 퇴학 후, 가두반으로 활동을 옮긴 경우였다.[96]

김철주는 가두반을 대상으로 한 「가두청년」이라는 간행물을 만들어 「반전」과 함께 배포했다. 앞서 김문옥이 가져온 『코뮤니스트』와 『봉화』도 가두반 조직을 통해서, 대중에게 배포되었다. 사상교육으로는 '12월 테제'와 '조선공산당사', '당조직론' 등을 실행했다.[97]

가두반은 1932년 3월 1일에 3.1운동 기념식을 계획했다. 이 기념식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회를 1932년 2월에 개최했는데, 이 기념식에는 윤희중이 결성한 노동준비위원회, 전주연초전매지국 장재섭의 독서회, 이우성의 농우회 등 산업별 대표들이 참석했다.[98]

3) 김제 야체이카의 활동과 전북지방위원회 구성원의 검거

전북지방위원회의 활동을 파악하는 과정도, 공청전북준비위와 같이 표면에 드러난 활동을 통해서 볼 수 있다. 다만, 사회주의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노동 부분의 활동은 전주를 중심으로 한 한종식과 김철주의 활동만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김제 야체이카를 통해서 노동부분 활동을 분리해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김제 야체이카는 앞서 말한 대로, 김창수가 입원 중에 결성한 야체이카이다. 전북운동을 책임진 한종식은 김창수를 통해서 이 야체이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다만 전주의 활동과 김제의 활동 사이에 연락을 주고받거나, 협동을 논의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전북지방위원회와는 느슨한 연결 상태에 놓였다고 판단된다.

김제 야체이카는 노동자들에 대한 일본 경찰의 검거가 발생하자, 이를 기회로 동맹파업을 준비했다. 1931년 10월 17일 밤부터 18일 사이에 김혁진과 김혁진이 포섭한 오오득, 전영구는 동맹파업 때 배포할 격문의 원고를 작성했다. 그러나 18일의 날씨가 매우 나빴기 때문에, 파업의 결행은 10월 23일로 결정했다. 그리고 22일 밤을 틈타, 김제노동조합 회관에 준비한 격문과 대자보 등을 준비하고, 격문을 살포할 사람, 대회 의사를 진행할 사람, 검거된 동지를 탈환할 사람 등의 역할분담을 마쳤다. 그러나 동맹파업 준비가 일본 경찰에 의해 발각되면서, 23일 아침에 체포되고 말았다.[99]

---

96) 전주지방법원 형사부, 1934.3.31, 「소화8년형공제1919호 판결문(김철주 외 41인)」.
97) 전주지방법원 형사부, 1934.3.31, 「소화8년형공제1919호 판결문(김철주 외 41인)」.
98) 전주지방법원 형사부, 1934.3.31, 「소화8년형공제1919호 판결문(김철주 외 41인)」.
99) 「김제노조간부 7명은 송국」, 『동아일보』, 1931년 11월 28일.

한편, 전주에서 활동하던 한종식은 1932년 5월, 대전에 방문해서 정창세를 만났다.[100] 한종식과 정창세가 만나고 난 이후인 대전 군시(郡是) 제사공장에서 파업이 일어났다. 정창세의 지도하에 있던 김지성이 파업 현장에서 격문을 살포하던 중 일본 경찰에 검거됐다. 이 일로 인해서, 정창세를 거쳐 한종식과 전북지방위원회가 일본 경찰에게 발각되고 말았다.

1심 재판 결과, 김철주는 징역 4년, 한종식은 징역 3년, 김규선은 징역 2년 6월, 길경섭, 김문옥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장재섭, 최월상, 이우성, 윤희중, 박복근, 이겸중, 신언진, 박병기, 박판남은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양한근, 윤기환, 양운성, 조균, 양기주는 각각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다. 그 중 이우성, 윤희중, 박복근, 이겸중, 양한근, 윤기환, 양운성, 조균, 양기주, 박병기는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받았다. 김귀중은 징역 1년에, 최재필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길재철과 길귀섭도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철주와 김문옥, 신언진, 김귀중은 2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월, 징역 2년 6월, 징역 2년,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4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101] 함께 검거되었던 김춘배와 고규영은 옥사했다.[102]

김제 야체이카를 조직해서 활동한 김혁진 등도 체포된 후, 1심에서 김혁진 3년 6월, 오오득 징역 3년, 김용원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유봉상은 각각 징역 1년 6월, 전영구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천성옥, 박동엽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김혁진, 오오득이 각각 징역 2년 6월을, 김용원은 징역 1년 6월, 유봉상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103]

전북지방위원회는 공청전북준비위의 실패를 딛고, 전라북도 지방에서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을 다시 일으키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전북지방위원회는 공청전북준비위와는 다르게 9월 테제를 통해서, 더욱 구체적인 활동 방향을 가질 수 있었다. 그래서 전북지방위원회는 공청전북준비위보다 외부적으로 더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었다. 특히, 다수가 참여한 독서회와 가두반의 활동은

---

100) 함경남도 함흥 출신으로, 1931년 5월 대전전위대 결성에 참여했다. 이후 대전전위대를 충남전위동맹으로 개조하는 데 참여했다. 노동반, 신문반, 학생반을 조직했고, 대전 군시제사공장 동맹파업을 지도했다(강만길·성대경, 1996, 앞의 책, 441쪽).

101) 전주지방법원 형사부, 1934.3.31, 「소화8년형공제1919호 판결문(김철주 외 41인)」; 대구복심법원, 1934.11.29, 「소화9년형공공 제161 내지 164호 판결문(김철주 외 8인)」.

102) 「충남전위동맹 전북비사 양대사건 합병으로 예심종결」, 『동아일보』, 1933년 12월 08일.

103) 대구복심법원, 1933.3.18, 「소화7년형공공 제754호, 제755호 판결문(김혁진 외 4인)」; 전주지방법원 형사부, 1932.12.2, 「소화7년형공 제1476호, 제1477호 판결문(김혁진 외 7인)」.

당시에 전라북도 내에서 사회주의 운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매우 크고 넓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마지막으로, 전북지방위원회는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전라북도 전체를 관할한 마지막 결사였다. 전북지방위원회가 무너진 이후에는 전북지방에서 더 이상 큰 규모의 사회주의 결사가 드러나지 않는다.

4. 맺음말

1929년부터 1932년 사이의 기간 동안, 전라북도에서는 조선공산당을 재건하기 위한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조선공산청년동맹 전북준비위원회와 조선공산당재건설준비회 전북지방위원회라는 두 결사는 서로 다른 방향을 가지고 당재건을 시도했다.

1929년부터 1930년까지 활동한 조선공산청년동맹 전북준비위원회는 조선공산청년동맹이라는 공산당의 하위기구를 통해서, 그 상위기구인 조선공산당을 건설하려고 했다. 이 결사는 전북지방에서 새로운 활동가를 구성해내는 성과를 거뒀다. 일반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던 이들을 사회주의 운동 전선에 포섭하면서, 이들이 추후 전북지방의 사회주의 운동을 이끌어 나갈 토대를 마련했다.

1931년부터 1932년까지 활동한 조선공산당재건설준비회 전북지방위원회는 9월 테제와 같은 더욱 자세한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 방침을 수용하고 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전북지방만을 포괄하는 임시 결사로서의 전북지방위원회를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한종식과 장재섭, 신언진 등은 이 시기에서는 사회주의 운동에 주도적인 위치로 성장해서 그 역할을 다해낼 수 있었다.

전체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에서도 두 결사의 활동은 큰 의미를 가진다. 두 결사의 활동과 결사를 구성하는 방향을 살펴보면, 1929년부터 1932년 사이에 당재건 운동 방침이 변화하는 양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1929년부터 1930년 사이에 당재건 운동은 12월 테제 안에서 제각각 독자성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9월 테제와 10월 서신이 발표되면서, 대부분의 재건운동 결사는 혁명적 대중조직 건설을 통한 공산당의 재건으로 수렴되어 갔다.

두 결사는 이렇듯 활발한 활동을 펼쳤지만, 갈수록 엄중해지는 일본 경찰의 탄압으로 인해서, 긴 시간 존속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말았다. 그리고 1년여의 짧은 활동으로 인해서, 최종 목표였던 조선공산당을 도출하는데 실패했다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았다. 또한, 전북지방위원회가 검거되면서 꾸려졌던

활동가들이 대거 운동에서 이탈하면서, 이후 전북지방에서는 일정 규모를 가진 사회주의 운동 결사가 나타나지 못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두 결사를 중심으로, 당시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이 가지는 특징과 시기별 차이를 조명하고자 했다. 다만, 사료의 부족과 여건의 제약 때문에 두 결사와 다른 조선공산당 재건운동 결사 사이에서 가지는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행동강령이나 사상교육 방법 등 세부적인 활동에 대한 해석을 명확하게 하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추후에는 이러한 부분을 중심으로, 사료 발굴을 통한 심도 있는 분석을 하고자 한다.

논문접수일: 2021. 04. 08. / 심사개시일: 2021. 05. 18. / 게재확정일: 2021. 06. 08.

참고문헌

1. 기본사료

경성지방법원 검사국a, 「朝鮮共産黨再建計劃其の他檢擧報告」.

경성지방법원 검사국b, 「朝鮮共産黨組織計劃の件」.

경성지방법원, 1932.3.25, 「소화6년 형공 제1396호, 제1397호 판결문(정우상 외 4인)」.

대구복심법원, 1932.4.28, 「소화7년형공공제161호 판결문(문은종)」.

대구복심법원, 1933.3.18, 「소화7년형공공 제754호, 제755호 판결문(김혁진 외 4인)」.

대구복심법원, 1934.11.29, 「소화9년형공공 제161 내지 164호 판결문(김철주 외 8인)」.

전주지방법원 형사부, 1930.3.5, 「소화4년형공 제1680호 판결문(임부득)」.

전주지방법원 형사부, 1932.12.2, 「소화7년형공 제1476호, 제1477호 판결문 (김혁진 외 7인)」.

전주지방법원 형사부, 1932.3.16, 「소화7년형공제100호 판결문(문은종 외 5인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형사부, 1934.12.24, 「소화9년형공공 제1200호 판결문(김성남 외 12인)」.

전주지방법원 형사부, 1934.3.31, 「소화8년형공제1919호 판결문(김철주 외 41인)」.

전주지방법원, 1933.12.4, 「소화8년형공 제1733호 판결문(김종련)」.

『동아일보』

『중외일보』

2. 연구논저

*단행본

강만길, 성대경, 1996, 『한국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 창작과 비평.

김경일, 1993, 『한국민족해방운동사자료집』 1권, 영진문화사.

김경일, 2008, 『노동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김용달, 2009, 『농민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김준엽, 김창순, 1986,『한국공산주의운동사』1~5, 청계출판사.

박철하, 2009,『청년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배성찬 편역, 1987,『식민지시대 사회운동론연구』, 돌베게.

역사문제연구소, 1992,『일제하 사회운동 인명색인집』, 여갈출판사.

이기하, 1976,『한국공산주의운동사』, 국토통일원.

이반송, 김정명 편저, 1986,『식민지시대 사회운동』, 한울림.

이준식, 2009,『조선공산당 성립과 활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임경석, 2003,『한국 사회주의의 기원』, 역사비평사.

최규진, 2009,『조선공산당 재건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국역사연구회 1930년 연구반, 1991,『일제하 사회주의운동사』.

한국역사연구회, 1995,『한국근현대 청년운동사』, 풀빛.

3. 논문

강윤정, 2003,「'안동콤그룹'의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안동사학』, 8권, 219-240쪽

_____, 2005,「1930년대 예천무명당의 조공재건운동」,『안동사학』, 10권, 495-516쪽

김경일, 1994,「경성콤그룹과 지방조직」,『한말 일제하의 사회사상과 사회운동』, 문학과 지성사.

김도형, 1993,「김천지방의 사회주의운동과 조선공산당 재건운동-김천지방을 중심으로-」,『북악사론』3권.

김희주, 2016,「진주지역의 사회주의운동과 조선공산당 재건운동」,『東國史學』61권, 341-385쪽

심상훈, 2018,「1930년대 조선공산당재건운동을 통해 본 사회운동의 성격-경북 북부지역 유학적 지식인의 활동을 중심으로-」,『朝鮮史硏究』27권, 171-196쪽

윤선자, 2007,「1933년 '전북조공재건 및 충남전위동맹'의 조직과 활동」,『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28집, 261-299쪽

임경석, 2006,「잡지 '꼼뮤니스트'와 국제선 공산주의그룹」,『근대전환기 동아시아 삼국과 한국-근대인식과 정책』,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최규진, 1996,「코민테른 6차대회와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정치사상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Abstract>

The Rebuilding Movement of the Korean Communist Party in the Jeonbuk Region(1929~1932)

Lee, Hyeon-jin*

This study looks at the movement to rebuild the Korean Communist Party that took place in the Jeollabukdo region from 1929 to 1932. This study will attempt to look at the characteristics and the patterns of change of the movement to rebuild the Korean Communist Party from 1929 to 1932.

After December 1928, the socialists started a movement to rebuild the Korean Communist Party based on the December Thesis. Organizations with various methods for rebuilding were formed all over the country. In October 1929, in Jeollabuk-do, Kim Byeongsuk, who was a member of the Korean Communist Party, led the formation of Jeonbuk Committee for Founding the Korean Communist Youth Alliance. This organization planned to build a communist youth alliance and build the Korean Communist Party upon it. It primarily focused on nurturing future party members, providing training courses, and teaching socialist ideology to its members. Additionally, it used front organizations such as the Jeonju Joint Labor Union to intervene in local labor issues and provoke nationwide strikes.

In July 1930, the Jeonbuk Committee for Founding the Korean Communist Youth Alliance was apprehended. Later, the Jeonbuk Committee for the Rebuilding of the Korean Communist Party took on the movement to rebuild the Korean Communist Party in Jeollabuk-do. Kim Chang-su, who spent time in jail due to the Korean Communist Party incident and Han Jongsik, a member of the above organization, formed this organization. Han Jongsik and Kim Cheolju led the activities in Jeollabuk-do. Unlike its predecessors, this organization attempted to rebuild the Korean Communist Party by forming cells that were the base of the party, through popular organizations. This association was provisional, to be disbanded after forming cells. This organization's

* Graduated from Jeonbuk National University with a master's degree in history

significant activities include forming socialist ideology reading clubs centered on schools in Jeonju and Iksan, and street teams to win over the general public. This organization was apprehended in 1932.

Key Words : The Korean Communist Party, Rebuilding Movement, Jeollabuk-do, The Communist Youth Alliance, Socialism